

연구논문

# 원장, 교사, 어머니의 어린이집 영아반 보육환경에 대한 불인지 비율과 평가

Blindness to and evaluation of the condition of the nurturing  
environment at infant/toddler child care centers  
by principals, teachers and mothers

인하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  
교수 현은강·윤정혜·오선주  
인하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  
조교수 이완정

Department of Consumer, Child, and Family Studies, Inha University  
On-Kang Hyun · Jung-Hai Yoon · Sunjoo Oh · Wanjeong Lee

〈목 차〉

- |                  |            |
|------------------|------------|
| I. 문제의 제기        | IV. 결과와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research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ratio of blindness to the child care environment and compare the evaluation of it among principals, teachers and mothers. Data were collected from questionnaires completed by respondents of this research were 37 principals, 37 teachers and 261 mothers of infants and toddlers at child care centers in Incheon, Korea. Cross tabulation,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were utilized to analyze the data. In almost all of the items

about the child care environment, mothers showed higher degrees of blindness than principals and teachers. In most of the items, mothers' evaluations were higher than those of principals and teachers. As a result, the researchers recognize a pressing need for programs for parents to improve the quality of child care.

Key words: evaluation of the child care environment, blindness to the child care environment, child care centers, infants/toddlers

## I. 문제의 제기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이래 보육시설에서 보육을 받고 있는 아동은 크게 증가하였고 0세부터 생후 2세 반까지의 영아(infants)나 걸음마기 아동(toddlers)을 보육시설에 보내는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2001년 현재 우리 나라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아동의 수는 총 702,860명인데 이 중 2세까지의 영아 및 걸음마기 아동의 수는 139,513명으로 19.8%에 달한다(보건복지부, 2001). 영아 보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영아기 보육 경험이 이후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논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두뇌발달의 60% 이상이 생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다거나(Bornstein & Lamb, 1992), 만 2세까지의 발달이 전생애발달의 초석이 된다(조복희 등, 1995; 유안진, 1996)는 주장들은 모두 영아기 발달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아기에는 더욱 양질의 보육을 받을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영아기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발달에 적합한 보육 프로그램과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Belsky, 1997). 본 연구는 보육시설의 영아반을 중심으로 이들의 보육환경에 대해 원장, 교사, 어머니의 삼각체계로 평가하여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영아를 둘러싼 중요한 환경구성자들이 이들의 보육환경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육환경의 질에 대한 평가 연구에서 실제로 측정하는 것은 응답자들이 유아가 보육시설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어느 정도 양질의 보육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 판단하고 있는 정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보육의 질'이란 개념은 대개 전문가들이나 연구자들에

게 익숙한 방식으로 규정되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Zaslow, 1991), 현장의 교사나 부모들이 실제로 전문가나 연구자들이 제시하는 기준으로 보육시설을 평가하고 있는지 등을 그들의 관점에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Kagan(1991)도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받고 있는 보육의 질을 가늠해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의 여부 혹은 얻을 수 있다면 그런 정보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의 여부도 의문스럽다고 지적 한 바 있다. 이완정 등(1997)이 아버지의 보육인지도를 살펴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녀가 보육시설에서 신체적 발달을 위해 충분한 배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18명 중 98명으로 나타나 부모들이 자녀의 보육상황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장, 교사, 어머니의 보육환경 평가를 조사하기 위해 이들이 보육상황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함께 조사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인천광역시 보육시설의 영아반 보육환경에 대한 원장, 교사, 어머니의 불인지 비율을 알아보고, 둘째, 영아반의 보육환경에 대한 원장, 교사, 어머니의 평가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영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보육환경의 질(quality)

영아기 보육 경험이 아동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난 20년간의 연구경향

을 정리한 논문에서 Clarke-Stewart(1994)는 우수한 질의 보육이라면 보육 경험이 아동의 제반 영역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양질의 보육경험은 잘 구성된 물리적 환경, 아동에게 반응적이고 잘 훈련을 받은 양육자, 균형 잡힌 프로그램의 운영, 그리고 낮은 교사 대 아동 비율과 집단의 크기의 적절함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영아기 보육 경험이 이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보육 경험이 애착형성에 미치는 결과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이는 부모 자녀간의 건강한 애착 형성이 영아기의 주요 발달과업이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80년대 이후 영아기 보육경험이 어머니와 자녀간의 애착형성에 저해가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오랜 논쟁이 진행되어 왔다(Belsky, 1990, 1992; Clarke-Stewart, 1990, 1992, 1994a, 1994b; Roggman 외, 1994). Belsky 진영의 연구들(1990, 1992, 1997)은 영아기 보육경험이 모-자녀간의 애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는 쪽이고, 반면에 Clarke-Stewart 등(1990, 1992, 1994)은 애착을 측정하는 낯선 상황 실험이 보육시설의 영아에게 사용하기에는 타당도가 떨어지므로 실제 상황은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결과 Roggman 등(1995)은 과학적인 실험설계에 의한 연구에서도 영아기 보육경험이 모-자녀간의 부정적인 애착을 초래한다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영아기 보육경험과 모-자녀간의 애착형성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추정하고 있다.

영아기 보육경험과 애착형성의 관계에 대한 가장 최근의 집적된 연구결과는 아동 초기 보육에 대한 '미국 아동건강 및 인간발달 국립 연구소(NICHHD)'의 것이라 할 수 있다(Booth 외, 1997). 전국적인 표집에 의해 얻은 1,300명이 넘는 영아를 대상으로 수행한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모-자녀간의 애착형성이나 아동의 문제행동, 적응 등의 발달을 설명해주는 주요 배경변인은 가족 변수나 어머니의 반응적인 태도 등으로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25%정도인데 비해, 영아기 보육경험의 시간이나 질이 아동발달을 설명하는 변량은 .5~1%정도로 나타났다. 하지만 영아 및 걸음마기 아동이 생후 2, 3년 간 보육시

설에서 보내는 시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보육시설의 질이 우수할수록 아동의 애착형성이나 문제행동, 적응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사실이 뚜렷이 증명되었으므로, 보육 시설의 질은 가족변수와 더불어 아동발달에 중요한 변수임에 틀림없다고 강조되고 있다(Belsky, 1997).

## 2. 보육 환경의 구성 요인 및 보육 환경 평가

Clark-Stewart(1987)는 보육의 질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영유아보육시설의 질적인 요인으로 보육 교사가 유아와 자주 언어적이고 교육적으로 상호 작용할 것, 유아가 목적 없는 놀이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할 것, 적절한 교사 대 아동비율과 합리적인 집단크기를 유지할 것, 그리고 교사가 전문적인 경험을 쌓고 균형 있는 훈련을 받을 것 등을 지적하고 있다. Belsky(1984)도 Clark-Stewart(1987)가 지적한 것과 유사하게 집단크기가 적절하고, 교사 대 아동비율이 낮으며 교사의 교육 수준이 높은 것을 보육시설의 질적인 요인으로 보았다. 한편 Endsley와 Bradbard(1981)는 우수한 질의 프로그램이란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능가할 정도의 경험과 교육의 질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수한 질의 프로그램의 요소로 건강과 안전, 충분한 공간, 발달에 맞는 교구와 설비, 낮은 교사-유아 비율, 그리고 부모참여 등을 제안하였다.

이밖에 Cataldo(1982), Vandell과 Power(1983), 그리고 Jalongo(1986)는 특히 종일제 유아교육기관에서 필요한 질적인 측면을 제시하였다. Cataldo(1982)의 경우에는 작은 집단크기, 잘 조직된 환경, 반응적이고 예민한 교사의 태도에 따라 종일제 유아교육기관의 질이 좌우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Vandell과 Power(1983)는 교사 대 아동 비율, 전문적인 교사교육, 작은 규모의 집단크기, 풍부한 물리적 환경을 제시하였고, Jalongo(1986)는 교육과정의 철저한 계획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포괄적이며 지속적인 평가를 유아교육기관의 질적인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Jalongo(1986)는 특히 유아교육기관

의 종일제 프로그램은 반일제 활동의 연장이 아니며 초등학교 공부를 준비하는 곳도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하고, 자유놀이나 휴식시간이 시간을 때우기 위한 수단이라 아니라 유아의 발달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활동이 유아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들은 아침 등원 시에서부터 저녁 퇴원 시까지 하루종일을 보육시설에서 보내게 된다. 이 경우 보육교사는 영유아들과 하루 내내 함께 생활을 하게 되며 보육교사가 지니고 있는 지식, 가치관, 태도, 인생관에서부터 행동, 정서, 말투, 표정에 이르기까지 영유아들에게 결정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이성진, 1995) 영유아들의 바람직한 성장, 발달에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umming, 1987; Haskins, 1985; Howes, 1992; Scarr 외 1994). 따라서 잘 준비된 보육환경과 좋은 보육프로그램과 훌륭한 교재·교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요인들을 활용할 교사가 미쳐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보육의 효과는 아주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

보육 환경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먼저 국내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유아교육기관 평가준거(한국교육개발원, 1987), 한국 유아교육시설 기관의 표준 평가척도(이영석, 1989), 유치원 교육 평가척도(국립교육평가원, 1994), 보육시설 평가기준 및 평가체계 개발(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유아교육프로그램 평가척도(이은혜·이기숙, 1996) 등이 있다. 한국교육개발원(1987)에서 개발한 것은 구체적인 평가준거라기 보다는 6개 하위 영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로서 평가활동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기초단계의 시도라 할 수 있다(강숙현, 1988). 국립교육평가원(1994)의 평가척도는 5개 하위영역에 60개 항목의 구체적인 문항을 갖고 있는데, 유치원의 교육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어 전반적인 보육환경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점이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에서 개발한 평가기준은 4개 하위영역에 9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보조도구도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척도 역시 영아나 걸음마기 아동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평가체제로 사용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외국의 보육환경 평가 도구로는 먼저 미국 NAEYC의 '우수한 초기아동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준거(Criteria for High Quality Early Childhood Programs)'를 들 수 있는데, 0세부터 8세까지의 발달에 적합한 아동 보육 및 교육 환경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 영아용 기준도 제시하고 있으나 영아나 걸음마기 아동의 보육환경을 따로 측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Harms와 Clifford의 일련의 도구들이 있는데, 첫째로 '유아교육 환경 평정 척도(Early Childhood Environment Rating Scale: ECERS)'는 7개 하위 영역에 37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임재택(1983)에 의해 표준화를 위한 예비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둘째로 '가정탁아 평정척도(Family Day Care Rating Scale: FDCRS)'는 5명 이내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제공되는 탁아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도록 고안되었으며, 6개 하위영역에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표준화를 위한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조선영(1992)의 연구에서 번역되어 사용된 바 있다. 셋째로 '영아/걸음마기 아동 환경 평정척도(Infants/Toddler Environment Rating Scale: ITERS)'는 0~30개월까지의 영아 및 걸음마기 아동의 보육환경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역시 7개 하위영역에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은강·이완정(1997; 1998)에 의해 타당화연구가 시행되었다. 이외에 Abbott-Shimm과 Sibley(1987)에 의해 개발된 '유아교육 프로그램 평가척도(Assessment Profile for Early Childhood Programs: APECP)'는 운영관리편에 145문항,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프로그램편에 각각 129, 147, 103문항이 구성되어 있는 도구이며, 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축약본도 있다. 국내에서는 강숙현(1994)에 의해 표준화연구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호주 NCAC(1993)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인준체계(Quality Improvement and Accreditation System)'가 있는데, 이는 4개 하위영역에 5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에서 타당화연구가 시행되지 않았다.

### 3. 보육환경 불인지 비율과 보육환경 평가

국내 보육프로그램 연구 중 부모의 만족도를 다룬 가장 최근 연구로 이정덕(200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전국 각지에서 표집된 830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부분별 육육과 만족도를 측정 한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만족도 및 만족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보육평가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보육환경에 대해 객관적으로 얼마나 알고 있는지와 보육환경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혹은 보육환경이 얼마나 바람직한지에 대해 차별화시켜 측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령 Sonenstein과 Wolf(1991)의 연구에서는 보육인지 비율과 보육만족도의 문항들이 함께 섞여 측정되고 있는데, 일례로 보육교사와 아동의 비율이 얼마인지를 묻고 있는 문항은 보육인지도를 측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바람직한 것인지를 묻고 있는 문항은 보육 환경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Waite, Leibowitz와 Whitsberger (1991)는 보육과 관련된 National data에서 아동의 연령에 따른 집단의 크기, 아동당 성인 보육자의 수, 보육자가 훈련을 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한 부모의 응답을 추출하여 이를 지역, 보육시설의 유형, 부모의 교육수준과 같은 특성에 따라 분석하였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위와 같은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하고 있지 않다.

사실 부모가 자녀의 보육 환경에 대해 얼마나 객관적으로 자세히 알고 있는지를 자세히 측정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보육인지도를 측정한 것은 아니나 이와 연관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연구를 살펴보면, 장인실의 연구(1995)에서는 ‘어린이집에서 건강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59.8%가, 그리고 ‘현재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이 오전 7:30분에서 오후 7:30분까지 12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32.2%의 어머니들만이 ‘알고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태에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이나 아동의 건강관리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부모

의 보육인지 비율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 최혜란의 연구(1996)에서는 분석대상이 된 218명의 어머니 중 보육인지 비율 부분에서 ‘안다’고 응답하여 보육 만족도의 분석에 포함된 사람이 각 하위영역에 따라 많게는 195명부터 적게는 162명 정도였으며, 아버지의 경우는 그 숫자가 더욱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부모들이 자녀의 보육환경을 평가하도록 요구받을 때 보육환경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만족의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보육환경에 대한 평가 연구에서는 반드시 보육인지 비율 문제를 먼저 측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보육인지 비율을 보육평가나 보육만족도와 동시에 측정할 때는 응답자가 이해하기 쉽게 질문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완정 등(1997)은 보육인지 비율을 측정하는 질문의 방식을 ‘-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로 묻고, 응답의 범주를 ‘모른다’, ‘모르는 편이다’, ‘아는 편이다’, ‘잘 안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고, 다시 동일 내용의 문항에 대해 보육 환경의 질이나 이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4점 리커트 척도를 주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평가방식은 응답자에게 인지적 부담과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보육인지 비율보다는 보육불인지 비율을 측정하는 것이 응답자의 이해를 돕는 방식일 수 있다.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앞에서 고찰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P1. 인천광역시 보육시설의 영아반 보육환경에 대한 불인지 비율은 보육환경평가자 집단(원장, 교사, 어머니)에 따라 달라지는가?
- P2. 인천광역시 보육시설의 영아반 보육환경에 대한 평가는 보육환경평가자 집단(원장, 교사, 어머니)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 2. 연구방법

### 1) 자료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인천광역시 어린이집의 원장, 영아반의 교사 및 어머니이다. 연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10개 구(군)에 소재 하는 전체 보육시설 959개 보육시설 중에서 37개 보육시설을 유의표집 하였으며, 표집된 어린이집의 원장 37명 및 영아반 교사 37명, 그리고 영아반 어머니 2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연구자 4인의 내용 타당도 검토를 기초로 수정한 후 본조사용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본 조사는 1998년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인천광역시 여성정책실의 공문을 동봉한 우편발송을 통해 실시되었다.

### 2) 변수

본 논문에서 사용한 종속변수는 보육환경에 대한 불인지 비율과 보육환경에 대한 평가의 두 가지이다. 보육환경평가척도는 미국 NAEYC(1991)의 '우수한 초기아동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준거(Criteria for High Quality Early Childhood Programs)', Abbott-Shimm과 Sibley (1987)에 의해 개발된 '유아교육 프로그램 평가척도(Assessment Profile for Early Childhood Programs: APECP)', '영아/걸음마기 아동 환경 평정척도(Infants/Toddler Environment Rating Scale: ITERS)'를 기초로 현오강·이완정(1997; 1998)에 의해 타당화 연구가 행해진 영아 및 걸음마기 아동의 보육환경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의 보육시설 평가기준 및 평가 체계 개발 연구를 기초로 10 하위영역, 31개 문항에 대하여 '매우 잘 되어있지 못하다' 1점부터 '매우 잘 되어있다' 4점까지 척도로 구성되었다.

보육환경에 대한 불인지 비율은 보육환경평가 척도의 문항과 동일한 내용에 대해 응답자가 알고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최혜란(1996)이나 이완정 등(1997)의 선행연구에서 보육환경 인지도를 묻는 측정 문항과 보육환경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병행하여 제시할 경우 응답자가 인지적 부담과 혼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시

정하고자 하였다. 즉 보육환경 평가 문항의 응답 항에 '잘 모른다'라는 칸을 제시하여 함께 측정 한 후, 응답자가 '잘 모른다'에 표시하면 해당 문항의 보육환경에 대한 불인지 상태로 보고 1점, 이에 표시하지 않으면 인지상태로 보아 0점을 주었다. 본 논문의 독립변수는 보육환경 평가자로서 원장, 교사, 어머니 세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 3) 분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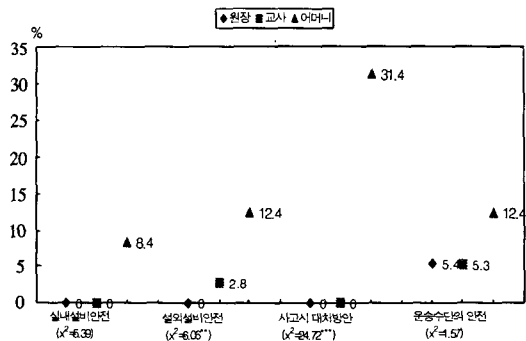
자료 분석은 SPSS for Windows version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집단간 불인지 비율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교차분석을, 집단간 평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단칸의 다중범위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였다.

## IV. 결과와 논의

### 1. 문항별 불인지 비율 및 평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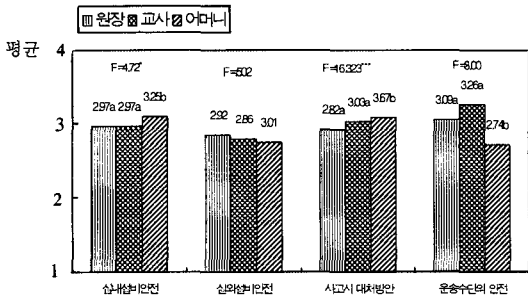
#### 1) 안전한 환경에 대한 원장, 교사, 어머니의 불인지 비율 및 평가 정도

안전한 환경에 대한 하위영역에서는 '실내설비 안전', '실외설비 안전', '사고 시 대처방안', '운송수단의 안전'의 4항목을 살펴보았다. <그림 1>에서는 안전한 환경에 대한 원장, 교사, 어머니의 불인지 비율을 살펴보았는데, 각 항목에 대한 불인지 비율은 원



<그림 1> 안전한 환경에 대한 불인지 비율

장, 교사보다는 어머니가 높은 편이었다 이 중 '실의 설비안전'과 '사고시 대처방안'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실내설비 안전 정도에 대한 항목에는 8.4%의 어머니가 모르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실외설비 안전 정도 및 운송수단 안전 정도에 대한 항목에는 12.4%의 어머니가, 그리고 사고 시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31.4%의 어머니가 잘 몰라서 평가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판단할 때 어린이집에서는 보육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절차나 과정을 어머니에게 잘 홍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사나 원장의 경우는 대부분의 문항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극히 적었는데, 다만 운송수단의 안전 정도에 대해서 원장의 5.4%, 교사의 5.3%가 잘 모르겠다고 하여 등·하원용 운송수단에 규칙적으로 동승하지 않는 한 원장이나 교사가 그 안전 정도를 잘 모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2〉 안전한 환경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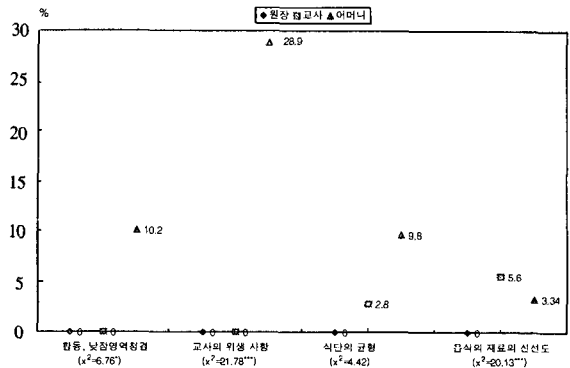
〈그림 2〉에는 안전한 환경에 대한 원장, 교사, 어머니의 평가 점수를 비교해 제시하였다. 4 항목 중 '실내설비안전'과 '사고시 대처방안' 항목에 대한 원장, 교사, 어머니의 평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두 항목에 대해 원장, 교사보다 어머니들이 더 높게 평가하였다. 운송수단의 안전 정도에 대한 평가 점수에서는 F비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Duncan Test에서는 원장, 교사에 비해 어머니들의 평가 점수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원장과 교사의 경우 4점 만점 중 평균 3.09점 및 평균 3.26점

이었으나 어머니들은 평균 2.74점으로 오히려 낮게 평가하였다. 이를 볼 때 어머니들은 매일 매일의 등·하원에 사용되는 운송수단의 안전 정도에 대해 원장이나 교사보다 더 우려하는 편이며 따라서 운송수단을 사용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이에 대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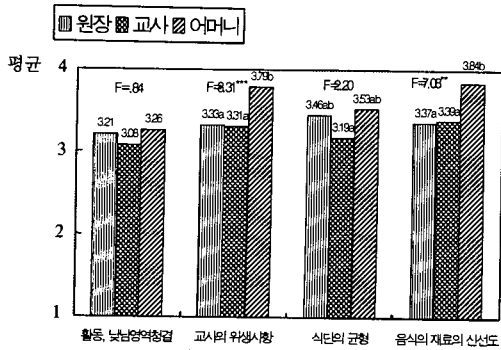
2) 환경의 청결 및 영양에 대한 원장, 교사, 어머니의 불인지 비율 및 평가 정도

환경의 청결 및 영양에 대한 하위영역에서는 '활동 및 낮잠 영역의 청결', '교사의 위생사항', '식단의 균형', 및 '음식재료의 신선도' 등의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림 3〉에는 원장, 교사, 어머니의 이들 항목에 대한 불인지 비율을 제시하였다. '식단의 균형'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머니들이 원장, 교사보다 불인지 비율이 높은 편으로 10.2%의 어머니들이 활동 및 낮잠 영역의 청결 정도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고, 교사의 위생사항에 대해서는 28.9%의 어머니들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원장이나 교사의 경우 각 항목에 대한 불인지 비율이 낮은 편이었으나 다만 음식재료의 신선도에 대해서는 5.6%의 교사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어머니보다 높은 불인지 비율을 보였다.

〈그림 4〉에는 환경의 청결 및 영양에 대한 원장, 교사, 어머니의 평가 점수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4개 항목의 평가 점수는 4점 만점에 모두 3점 이상으



〈그림 3〉 환경의 청결 및 영양에 대한 불인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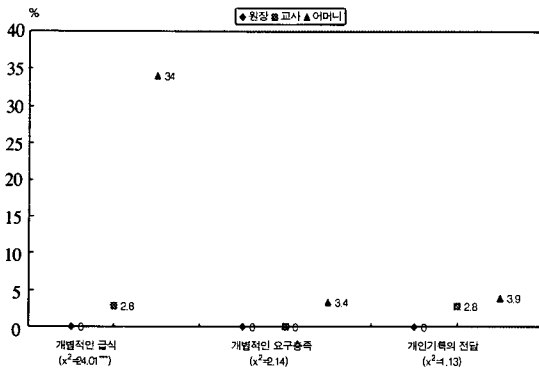


〈그림 4〉 환경의 청결 및 영양에 대한 평가

로 나타나 환경의 청결 및 영양에 대한 평가는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위생사항'과 '음식 재료의 신선도'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두 항목에서 모두 원장, 교사보다 어머니들의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개별적인 요구의 충족에 대한 원장, 교사, 어머니의 불인지 비율 및 평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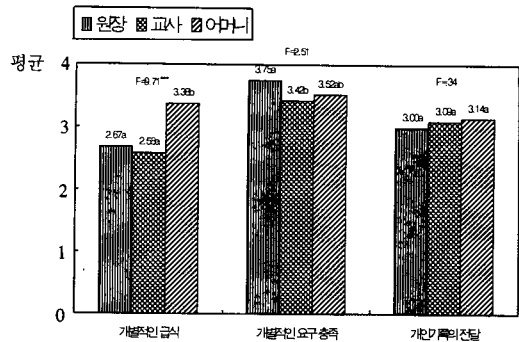
개별적인 요구의 충족에 대한 하위영역에서는 '개별적인 급식', '개별적인 요구충족', 및 '개인기록의 전달'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림 5〉에 제시된 원장, 교사, 어머니의 불인지 비율을 보면,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5% 미만으로서



〈그림 5〉 개별적인 요구의 충족에 대한 불인지 비율

비교적 불인지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별적인 급식에 관한 항목에서는 34%의 어머니들이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어머니들이 자신의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개별적인 급식을 잘 받고 있는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에서만 세 집단의 불인지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에는 원장, 교사, 어머니의 평가 점수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개별적인 급식의 정도에 대해서만 원장, 교사, 어머니의 평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들에 비해 원장, 교사들의 평가가 낮았는데 이는 어린이집에서 개인마다 먹는 일정이 다른 영아에게 개별적으로 급식을 해주는 것이 손이 많이 가는 일이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원장이나 교사는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이의 개별적인 육구의 충족이나 개인기록의 전달에 대해서는 원장, 교사, 어머니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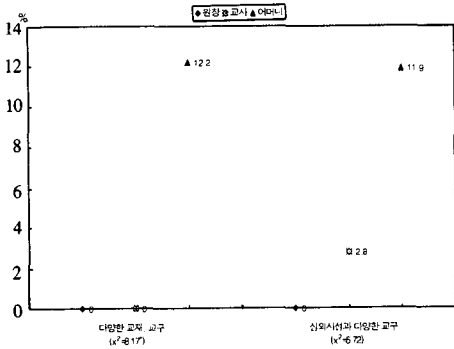
〈그림 6〉 개별적인 요구의 충족에 대한 평가

4) 실내외 교재, 교구에 대한 원장, 교사, 어머니의 불인지 비율 및 평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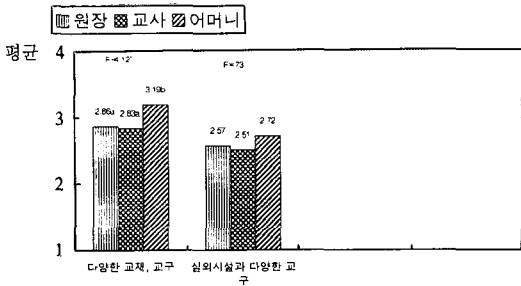
실내외 교재, 교구에 대한 하위영역에서는 '다양한 교재, 교구'와 '실외시설의 여부와 충분한 교구'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림 7〉에 제시된 원장, 교사, 어머니의 불인지 비율을 보면, 12.2%의 어머니들이 다양한 교재, 교구의 정도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고, 실외시설의 여부와 충분한 교구에 대해서



도 11.9%의 어머니들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원장, 교사보다 불인지 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나, '다양한 교재, 교구' 항목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실내의 교재교구에 대한 불인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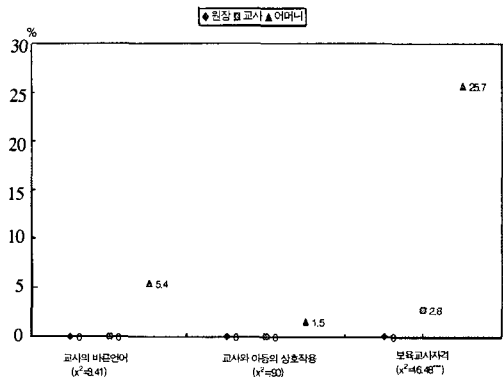
〈그림 8〉 실내의 교재교구에 대한 평가

〈그림 8〉에서는 실내의 교재, 교구에 대한 원장, 교사, 어머니의 평가 점수를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실내의 교재, 교구가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는 정도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원장, 교사에게 비해 어머니들이 더 높은 평가 점수를 주었다. 실외시설 여부와 교구가 충분한 정도에 대해서는 세 집단이 모두 3점 이하로 낮게 평가하였다. 어머니들은 실내의 교재, 교구가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는 정도에 대해 원장이나 교사보다 더 높게 평가하였는데 이는 어머니들의 경우 눈에 띄는 것만 보고 판단하게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어느 어린이집이나 최소한의 실내 교재 및 교구는 구비해 놓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만족하는 경향이 높고, 이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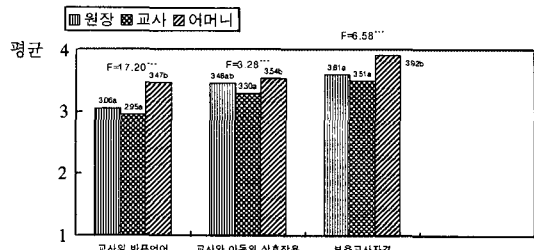
하여 원장이나 교사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일상적으로 이 교구들을 사용하여 영아와 활동을 진행하기 때문에 실내 교재, 교구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평가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5) 교사의 자질에 대한 원장, 교사, 어머니의 불인지 비율 및 평가 정도

교사의 자질에 대한 하위영역에서는 '교사의 바른 언어',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 그리고 '교사의 자격'에 대한 원장, 교사, 어머니의 불인지 비율과 평가 점수를 비교해 보았다. 〈그림 9〉에 제시된 불인지 비율을 보면, 어머니의 경우 보육교사의 자격여부를 모른다고 한 사람이 응답자의 25.7%여서 어머니들이 보육시설을 선택할 때 교사의 자격 등에 대해 묻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항목에 대해서만 세 집단의 불인지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게 나타났다.



〈그림 9〉 교사의 자질에 대한 불인지 비율



〈그림 10〉 교사의 자질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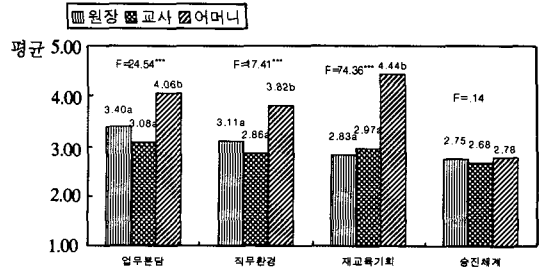
〈그림 10〉에는 교사의 자질에 대한 원장, 교사, 어

머니의 평가 점수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세 항목 모두에서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평가 점수가 3점에서 3.9점을 상회하여 교사의 자질에 대해 원장, 교사, 어머니 모두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들이 원장, 교사에 비해 평가 점수가 더 높았다. 교사의 질이 보육의 질을 상회하지 못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Phillips & Howes, 1987)을 고려한다면 이는 바람직한 보육환경의 구성에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사료된다.

6) 교사의 직무환경에 대한 원장, 교사, 어머니의 불인지 비율 및 평가 정도

교사의 직무환경에 대한 하위영역에서는 ‘업무분담’, ‘직무환경’, ‘재교육기회’, ‘승진체계’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림 11>에는 4항목에 대한 원장, 교사, 어머니의 불인지 비율을 살펴보았는데, 교사의 직무환경에 대해서는 많은 어머니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승진체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교사도 19.4%였다. 네 항목 모두 세 집단의 불인지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에는 교사의 직무환경에 대한 원장, 교사, 어머니의 평가 점수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는데, ‘업무분담의 적절성’, ‘직무환경’, ‘재교육기회’에 대한 항목에서 세 집단의 평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원장, 교사의 경우 업무분담, 직무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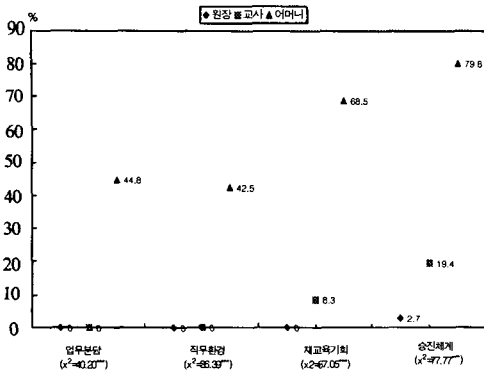
<그림 12> 교사의 직무환경에 대한 평가

경, 재교육기회의 정도에 대해 어머니들에 비해 낮게 평가를 하여 자신의 직무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 불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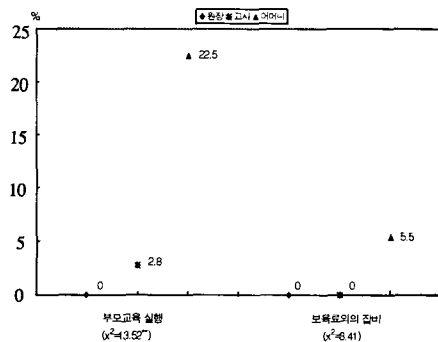
7) 부모교육 및 보육비 부담에 대한 원장, 교사, 어머니의 불인지 비율 및 평가 정도

부모교육 및 보육비 부담에 대한 하위영역에서는 ‘부모교육 실행’과 ‘보육료의 잠비 부담’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림 13>에는 이에 대한 원장, 교사, 어머니의 불인지 비율을 살펴보았는데, 22.5%의 어머니가 부모교육 실행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어머니들이 적절한 부모교육의 정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에 대해서만 세 집단의 불인지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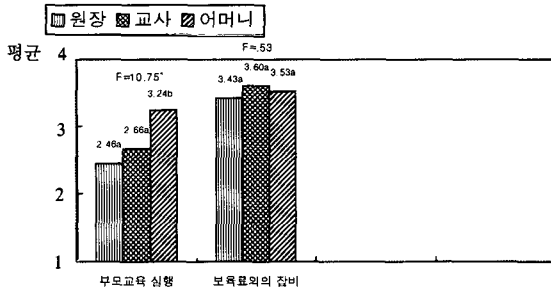
<그림 14>에는 원장, 교사, 어머니의 평가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는데, 부모교육의 실행에 대해서는 세



<그림 11> 교사의 직무환경에 대한 불인지 비율



<그림 13> 부모교육 및 보육비 부담에 대한 불인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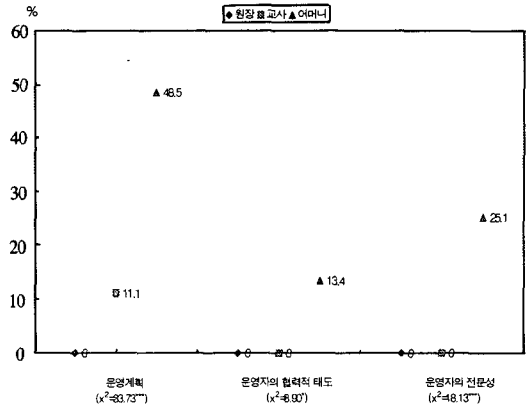
〈그림 14〉 부모교육 및 보육비 부담에 대한 평가

집단간의 평가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장, 교사들이 어머니에 비해 낮게 평가하였다. 원장이나 교사의 경우 부모교육을 기획, 실행하는 주체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것만큼 부모교육을 잘 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 사료된다. 이들은 부모의 참여가 낮아 부모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육료의 감비 부담에 대해서는 세 집단 모두 평균 3.5점 내외로 매우 높게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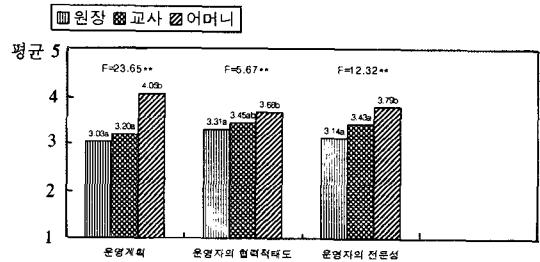
8)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원장, 교사, 어머니의 불인지 비율 및 평가 정도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하위영역에서는 ‘운영계획’, ‘운영자의 협력적 태도’, ‘운영자의 전문성’에 대한 항목을 살펴보았다. 〈그림 15〉에 제시된 원장, 교사, 어머니의 불인지 비율을 보면, 48.5%의 어머니가 운영계획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고, 25.1%는 운영자의 전문성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교사의 경우 13.4%의 응답자가 운영자의 협력적 태도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세 항목에서 모두 세 집단의 불인지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6〉에는 원장, 교사, 어머니의 평가 점수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는데, 모든 집단이 거의 모든 항목에 평균 3점대의 평가를 하였다. 세 항목 모두에서 세 집단간의 평균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운영계획과 운영자의 전문성 대해



〈그림 15〉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불인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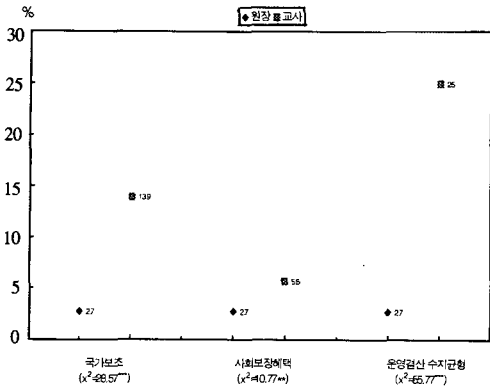


〈그림 16〉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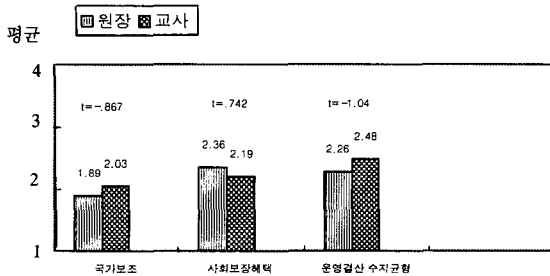
서는 원장이나 교사보다 어머니의 평가 점수가 높았고, 운영자의 협력적 태도에 대해서는 원장의 평가 점수에 비해 어머니의 평가 점수가 높았다.

9) 운영 및 국가보조에 대한 원장과 교사의 불인지 비율 및 평가 정도

운영 및 국가보조의 하위영역에서는 ‘국가보조’, ‘사회보장혜택’, ‘운영결산 수지균형’에 대해 알아보았다. 항목의 내용상 어머니의 불인지 비율이 너무 낮아 적절한 평가를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설문조사 도구에서는 어머니의 응답을 채취하지 않았다. 〈그림 17〉에 제시된 원장과 교사의 불인지 비율을 살펴보면, 교사의 경우 국가보조에 대해서는 13.9%의 응답자가, 그리고 운영결산의 수지균형에 대해서는 25%의 응답자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원장의 경우도 이제까지 살펴본 하위영역에서와



〈그림 17〉 운영 및 국가보조에 대한 불인지 비율



〈그림 18〉 운영 및 국가보조에 대한 평가

는 달리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전 항목에서 2.7% 정도 있었다. 세 항목 모두에서 원장, 교사의 불인지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8〉에는 원장과 교사의 평가 점수를 제시하였는데, 국가보조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원장의 평가 점수가 평균 1.89점, 교사의 평가 점수가 평균 2.03점으로 31개 보육환경 평가 항목 중 가장 낮았다. 사회보장혜택의 경우에도 원장과 교사가 각각 평균 2.36과 평균 2.19점으로 매우 낮게 평가하였으며, 운영결산 수지균형에 대해서도 원장은 평균 2.26점, 교사는 평균 2.48점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10) 보육행정 및 공무원의 협조에 대한 원장과 교사의 불인지 비율 및 평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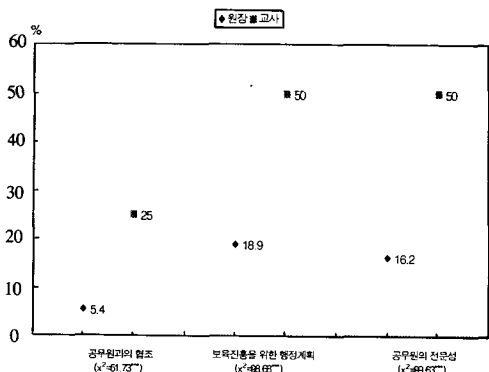
보육 행정 및 공무원의 협조에 대한 하위영역에서

는 ‘공무원과의 협조’, ‘보육진흥을 위한 행정계획’ 및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 영역 역시 문항의 내용상 어머니의 불인지 비율이 매우 낮을 것이라 판단되어 어머니의 응답은 채취하지 않았다. 〈그림 19〉를 보면 교사의 경우 공무원과의 협조에 대해 25%의 응답자가, 그리고 행정계획이나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50%의 응답자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원장의 경우 공무원과의 협조에 대해서는 5.4%의 응답자가, 행정계획에는 18.9%, 그리고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16.2%의 응답자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세 항목 모두에서 원장, 교사 집단의 불인지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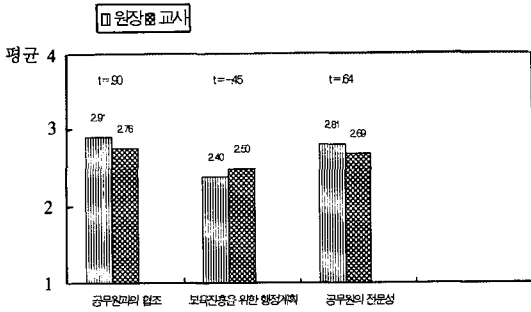
〈그림 20〉에는 보육행정 및 공무원의 협조에 대한 원장과 교사의 평가 점수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원장과 교사의 평가 점수는 모든 항목에서 3점 미만으로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항목은 보육행정을 위한 진흥계획이었다(원장 = 평균 2.4점, 교사 = 평균 2.5점). 그 외 공무원의 전문성이나 공무원과의 협조에 대해서도 원장과 교사는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항목 모두에서 두 집단간에 평가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영역별 보육환경 평가

보육환경의 각 하위영역별 평가 점수에 대해 원



〈그림 19〉 보육행정 및 공무원의 협조에 대한 불인지 비율



〈그림 20〉 보육행정 및 공무원의 협조에 대한 평가

장, 교사, 어머니 집단을 비교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실내외 교재교구’, ‘운영 및 국가보조’, ‘보육행정 및 공무원의 협조’의 세 하위영역에서만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세 집단의 평가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모든 영역에서 원장과 교사에 비해 어머니들의 평가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교사의 자질’, ‘교사의 직무환경’, ‘운영의 효율성’의 하위영역에서 어머니들이 높게 평가하여 원장, 교사 집단과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 V. 결론

영아기 어린이들의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면서 영아보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보육시설의 영아반의 경우 유아반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운영 실태가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 보육시설 중 영아반을 중심으로 본 보육환경을 원장, 교사, 어머니의 삼각체계로 평가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영아반의 보육환경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들의 평가정도를 조사할 때 이들이 보육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제대로 응답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보육환경에 대한 불인지 비율도 알아보았다. 보육환경의 각 하위영역별 불인지 비율과 평가 점수를 원장, 교사, 어머니 세 집단간에 비교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한 환경에 대한 하위영역에서의 불인지 비율은 ‘실외설비안전’과 ‘사고 시 대처방안’ 항목에서 세 집단간에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원장, 교사보다는 어머니의 불인지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안전한 환경에 대한 평가 점수는 ‘실내설비안

〈표 1〉 보육환경의 하위영역별 평가 점수 비교(DMR)

하위영역	원장 M(SD)	교사 M(SD)	어머니 M(SD)	F비(t값)
안전한 환경	2.93(.59)a	3.02(.40)ab	3.19(.62)b	3.28*
환경의 청결 및 영양	3.36(.58)a	3.24(.41)a	3.61(.60)b	7.73**
개별적 요구 충족	3.17(.46)ab	3.03(.46)a	3.35(.70)b	4.22*
실내외 교재교구	2.69(.75)	2.68(.64)	2.95(.85)	2.97
교사의 자질	3.37(.41)a	3.25(.34)a	3.64(.45)b	16.46***
교사의 직무환경	3.02(.46)a	2.92(.51)a	4.09(.79)b	62.47***
부모교육 및 보육비부담	2.93(.56)a	3.13(.48)a	3.39(.74)b	8.29***
운영의 효율성	3.16(.39)a	3.35(.56)a	3.85(.60)b	29.64***
운영 및 국가보조	2.19(.68)	2.23(.74)		-.21
보육행정 및 공무원의 협조	2.70(.58)	2.71(.54)		-.04

참고) a, b, c: 동일문자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전'과 '사고 시 대처방안'의 항목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여 원장, 교사보다 어머니들의 평가 점수가 높았다. 그러나, 운송수단의 안전정도에 대해서는 어머니들이 오히려 더 낮게 평가하였다.

둘째, 환경의 청결 및 영양에 대한 하위영역에서의 불인지 비율은 '활동 및 낮잠영역의 청결', '교사의 위생사항', '음식재료의 신선도'의 항목에서 세 집단간에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원장, 교사에 비해 어머니들의 불인지 비율이 대체로 높으나 '음식재료의 신선도' 항목에서는 교사의 불인지 비율이 어머니보다 오히려 높았다. 환경의 청결 및 영양에 대한 평가 점수는 '교사의 위생사항'과 '음식재료의 신선도' 항목에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원장, 교사보다 어머니들의 평가가 높았다.

셋째, 개별적인 요구의 충족에 대한 하위 영역에서의 불인지 비율은 '개별적인 급식'의 항목에서만 세 집단간에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의 불인지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개별적인 요구의 충족에 대한 평가 점수는 '개별적인 급식'의 항목에서만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원장, 교사의 평가가 어머니에 비해 낮았다.

넷째, 실내의 교재 교구에 대한 하위영역에서의 불인지 비율은 '다양한 교재, 교구' 항목에서만 세 집단간에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들의 불인지 비율이 높았다. 실내의 교재 교구에 대한 평가 점수는 '실내의 교재, 교구'의 항목에 대해서만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원장, 교사에 비해 어머니들의 평가가 높았다.

다섯째, 교사의 자질에 대한 하위영역에서의 불인지 비율은 '보육교사의 자격'의 항목에서만 세 집단에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의 불인지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교사의 자질에 대한 하위영역의 평가 점수는 '교사의 바른 언어',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 '보육교사의 자격'의 세 항목에서 모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원장, 교사에 비해 어머니들의 평가 점수가 높았다.

여섯째, 교사의 직무환경에 대한 하위영역에서의 불인지 비율은 '업무분담의 적절성', '직무환경', '재교육 기회', '승진체계'의 네 항목 모두에서 세 집단

이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들의 불인지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교사의 직무환경에 대한 평가 점수는 '업무 분담의 적절성', '직무환경', '재교육 기회'의 항목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원장, 교사가 어머니들에 비해 낮게 평가하였다.

일곱째, 부모교육 및 보육비 부담에 대한 하위영역에서의 불인지 비율은 '부모교육 실행'의 항목에서만 세 집단간에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들의 불인지 비율이 가장 높았다. 부모교육 및 보육비 부담에 대한 평가 점수는 '부모 교육의 실행'의 항목에서만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원장, 교사들이 어머니에 비해 낮게 평가하였다.

여덟째,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하위영역에서의 불인지 비율은 '운영 계획', '운영자의 협력적 태도', '운영자의 전문성'의 세 항목 모두에서 집단간에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들의 불인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 점수는 세 항목 모두에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평가 점수가 가장 높았다.

아홉째, 운영 및 국가보조의 하위영역에서는 '국가보조', '사회보장혜택', '운영결산수지균형'의 세 항목에서 모두 교사의 불인지 비율이 원장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운영 및 국가보조에 대한 평가 점수는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원장, 교사가 모두 낮게 평가하였다.

열째, 보육 행정 및 공무원의 협조에 대한 하위영역에서는 '공무원과의 협조', '보육 진흥을 위한 행정 계획', '공무원의 전문성'의 세 항목 모두에서 교사의 불인지 비율이 원장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평가 점수에서는 세 항목 모두에서 원장, 교사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보면 거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원장, 교사 집단에 비해 어머니들의 불인지 비율이 높고, 평가 점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보육행정 및 보육시설의 운영 과정에는 원장 뿐 아니라 교사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참여자들이 민주적으로 협의하여 계획수립 및 운영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한 이익은 보육의 질(quality) 상승으로 직결되어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원장, 어머니,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중 이들의 영아반 보육환경 불인지 비율을 살펴보면, 어머니들의 경우 교사의 업무분담, 승진체계, 재교육기회 등 교사의 직무환경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응답자가 항목마다 40~80%에 이르렀다. 이외에도 어머니 중 49%의 응답자들이 보육시설의 운영계획에 대해, 그리고 25%의 응답자들은 운영자의 전문성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어머니들이 보육시설의 운영 상황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교사의 경우에도 응답자들의 20%가 자신의 승진체계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고, 보육시설의 운영 및 수지균형에 대해서는 25%가, 공무원과의 협조사항에 대해서 25%가, 그리고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50%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교사도 보육시설의 운영 상황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시설의 운영이 주로 원장의 계획 및 운용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원장의 경우에도 응답자의 19%가 보육 행정 계획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고, 16%의 응답자가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보육시설의 원장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행정의 계획 수립 및 운영과정에 잘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보육 행정 및 보육시설의 운영이 모두 소수 담당자 및 관리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므로 보육 행정 및 보육 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모든 관련 구성원이 민주적으로 함께 참여하여 계획 수립 및 운영 과정을 이끌어 나갈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보육시설에서는 부모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부모는 보육시

설에서 이루어지는 부모 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해야한다. 그리하여 보육시설의 운영자와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자주 접촉하면서 서로의 요구와 기대를 이해하되 이러한 과정은 모두 영아의 복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보육시설 원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원장들은 자기 보육시설의 영아 보육 환경에 대한 평가에서 부모교육의 계획 및 실행에 매우 낮은 평가 점수를 주었다. 이는 부모들이 막상 부모교육이나 학부모 모임을 진행시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보육시설 측에서도 취업과 가사로 바쁜 부모를 방해하지 않으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보육시설에서도 부모교육에 특별한 노력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면서도 어머니들은 현재 영아기 자녀를 보내고 있는 보육시설의 영아 보육 환경에 대한 평가에서 보육교사의 자격 및 교사-아동의 상호작용을 높게 평가하여 자격 있는 교사가 자녀와 원만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자녀의 일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낙관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영유아보육은 영유아를 위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영유아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여성복지의 측면에서 여성의 복리를 위한 아동 보육의 제공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보육 문제는 영유아가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주체라는 인식 하에 영유아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육시설의 원장과 교사 및 부모는 각자의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모임을 준비하고 또 이에 참여하여 보육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영유아의 복리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어머니들은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 상황에 대해서는 불인지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대상 어머니의 31%는 보육시설에서 사고시 어떠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모르고 있었으며, 34%는 영아를 위한 개별적인 급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자녀와 직접 연결된 문제 외에도 자녀를 돌보고 있는 보육교사의 자격에 대해 26%의 어

머니가 모르고 있었고, 교사의 여러 가지 직무환경에 대해서는 40~70%의 어머니가 잘 모르고 있었으며, 심지어 교사의 승진체계에 대해서는 80%의 어머니가 잘 모르고 있었다. 보육 상황에 대한 이러한 높은 불인지 비율은 결국 자녀를 보낼 보육 시설을 선택할 때도 어머니들이 시설의 차별성을 식별하기 어려워 위치의 편리함이라거나 원장 및 교사의 인상 등을 기초로 선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보육시설에서는 보육교사의 자격이나 비상시 대책방안 등 보육을 위한 기본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모 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부모의 이해를 높이고 부모도 이러한 모임에 적극 참여하여 보육 상황에 대한 지식을 넓힐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부모들은 건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떠한 태도와 노력을 해야 하는지 보다 많이 알게 될 것이고, 또한 이후에 보육시설을 선택할 일이 있거나 옮길 일이 있을 때 다른 보육시설의 어떤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며 보육시설에서도 부모가 요구하는 제반 조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인 바, 이러한 제반 노력은 모두 궁극적으로는 영아의 복리를 위한 보육의 질(quality)상승으로 귀결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숙현(1988). 유아교육 프로그램 인준평가기준의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숙현(1994). 유아교육 프로그램 평가척도의 이해와 활용. 서울: 동문사
- 국립교육평가원(1994). 유치원 교육 평가연구.
- 보건복지부(2001). 보육통계. www.educare.or.kr
- 유안진(1996). 인간발달신경. 서울: 교문사.
- 이명조(2001). 영유아보육프로그램 실태 분석 연구. 한국아동학회지, 22(3), 287-308.
- 이성진(1995). 한국 보육교사 양성교육제도의 과제와 방향. 한국영유아보육학 제3집. 1-18.
- 이영석(1989). 한국유아교육시설기관과 표준평가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 29(2), 169-221. 성균관대 사회과학연구소.
- 이완정·현온강(1998). 영아/절음마기 아동 환경 평정 척도 타당화 연구(II), 대한가정학회지, 36(6), 95-108.
- 이완정·현온강·최혜란(1997).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자녀의 보육상황에 대한 보육인지도가 아버지의 보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155-168
- 이은혜·이기숙(1996). 유아교육 프로그램 평가척도. 서울: 창지사.
- 장인실(1995). 보육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 관한 연구: 서울,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복희·정옥분·유가효(1995). 인간발달: 발달심리적 접근. 서울: 교문사.
- 조선영(1992). 가정보육시설의 질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혜란(1996). 유아기 자녀의 보육상황에 대한 부모의 보육인지도와 보육만족도,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교육개발원(1987). 유아교육기관 평가준거 개발 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 보육시설 평가기준 및 평가체계 개발.
- 현온강·이완정(1997). 영아/절음마기 아동 환경 평정 척도 타당화 연구(I), 대한가정학회지, 35(6), 235-248.
- Abbott-Shim, M. & Sibley, A.(1987). *Assessment profile for early childhood programs*. Atlanta, GA: Quality Assist, Inc.
- Belsky, J.(1984). Two waves of day care research: Development effect and conditions of quality. *The child and day care setting*. ed. R. Ainslie,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34.
- Belsky, J.(1990). The "effects" of infant day care reconsidered. In N. Fox & G. G. Fein(Eds.), *Infant day care: The current debate*(pp.3-40). Ablex Publishing Corp. NJ: Norwood.



- Belsky, J.(1992). Consequences of child care for children's development: A deconstructionist view. In A. Booth(Ed.), *Child care in the 1990s: Trends and consequences*(pp.83-94).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NJ: Hillsdale.
- Belsky, J.(1997). Effects of nonmaternal care on child development, 인하대학교 생활과학 연구소 워크샵 자료집, 1-13.
- Booth, A.외(1997). The effects of infant child care on infant-mother attachment security: Results of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미간행 논문.
- Bornstein, M. H. & Lamb, M. E. (1992). *Development in infancy*. NY: McGraw-Hill, Inc.
- Cataldo, C. Z.(1982). Very early childhood education for infants and toddlers. *Childhood Education*, 1, 149~154.
- Clarke-Stewart, A.(1987). In Search of consistencies in child care research. D. A. Phillips(ED) *Quality in child care: What does research tell us?* Washington D. C.: NAEYC. 105.
- Clarke-Stewart, A.(1992a). Consequences of child care for children's development. In A. Booth(Ed.), *Child care in the 1990s: Trends and consequences*(pp.63-82).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NJ: Hillsdale.
- Clarke-Stewart, A.(1992b). Consequences of child care-One more time: A rejoinder. In A. Booth (Ed.), *Child care in the 1990s: Trends and consequences*(pp.116-126).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NJ: Hillsdale
- Clarke-Stewart, A.(1994a). Day care in the U.S.A.: Some lessons. '94년 삼성 어린이개발센터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1-16.
- Clarke-Stewart, A.(1994b). Day care - Good or bad for children? '94년 삼성 어린이개발센터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131-146.
- Clarke-Stewart, A.(1990). "The effects of infant day care reconsidered" reconsidered: Risks for parents, children, and researchers. In N. Fox & G. G. Fein(Eds.), *Infant day care: The current debate*(pp.61-86). Ablex Publishing Corp. NJ: Norwood.
- Cumming, E. M.(1980). Caregiver stability and day care. *Developmental Psychology*, 16. 31-37.
- Endsley, R. C. & Bradbard, M. R.(1981). *Quality day care a handbook of choices for parents and caregivers*, N. J. Cliffs. Parentice-Hall Inc.
- Haskins, R.(1985). Public aggression among children with varying day care experience. *Childhood development*, 57. 202-203.
- Howes, C.(1992). Child outcomes of child care programs. In Spodek, B. & Saracho, O. (eds.). *Issues in Child Care*. Teachers Colleague, Columbia University. 31-46.
- Jalongo, W. R.(1986). What is happening to kindergarten? *Childhood Education*, 1, 157.
- Kagan, S. L.(1991). Examining profit and nonprofit child care: An Odyssey of quality and auspices, *Journal of Social Issues*, 47(2),
- NCAC(National Childcare Accreditation Council). (1993). *Quality improvement and accreditation system handbook*. Sydney: Commonwealth of Australia.
- Phillips, D. A. & Howes, C.(1987). Indicators of quality in child care: Review of research. In D. A. Phillips(Ed.), *Quality in child care: What does research tell us?*(pp.1-21).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 Roggman, L. A. et al(1994). Infant day care, attachment, and the 'file drawer problem'. *Child Development*, 65, 1421-1435.
- Scarr, S., Eisenberg, M. & Deater-Deckard, K.(1994). Measurement of quality in child care cente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9. 131-151.
- Sonenstein, F. L., & Wolf, D. A.(1991) Satisfaction

- with child care: Perspectives of welfare mothers. *Journal of Social Issues*, 47(2), 15-31.
- Vandell, D. L. & Powers. C.(1983). Day care quality and children's free play activiti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3, 499~500.
- Waite, L., J., Leibowitz, A. L., & Witsberger, C. What parents pay for: Child care characteristics, quality, and costs. *Journal of Social Issues*, 47(2), 1991, 33-48.
- Zaslow, M. J. Variation in child care quality and its implications for children. *Journal of Social Issues*, 47(2), 1991, 125-138.